’19년 6월
아랍에미리트(UAE) 주요 경제 동향

2019. 7. 7

1. 경제일반 / p.1

2. 산업 / p.6

3. 자원·에너지 / p.7

4. 건설・플랜트 / p.9

5. 농업・식품 / p.13

주 아랍에미리트(UAE) 대사관

1. 경제일반

□ (경기 동향 지수) Emirates NBD(두바이 최대은행)의 **5월 구매자관리지수**(PMI)와 **두바이 경기지수**(Dubai Economy Tracker Index) 모두 **전월대비 상승**

○ **5월** 구매자관리지수*가 **59.4**로서 전월(57.6) 보다 **1.8 상승**한 바, 이는 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

* **통상 구매자관리지수**(Purchasing Manager's Index)는 제조업 구매담당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**'제조업 분야 경기 동향 지수'**이나, **Emirates NBD의 구매자관리지수**는 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소매업 등 400개 기업 구매담당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**'비석유부문 경기 동향 지수'**임
(PMI가 통상 50을 초과하면 경기의 확장, 50미만이면 수축을 의미)

<UAE의 구매자관리지수 월별 추이>

18.8월	18.9월	18.10월	18.11월	18.12월	19.1월	19.2월	19.3월	19.4월	**19.5월**
55.0	55.3	55.0	55.8	54.0	56.3	53.4	55.7	57.6	**59.4**

- 이번 PMI 상승은 **생산(output)과 신규 주문(new order)의 빠른 증가**에 따른 것이나, 동 증가세가 **기업들의 가격 할인에 의해 뒷받침**되고 있음

  · 기업의 **판매가격이 8개월 연속 하락**한 바, 기업들이 경쟁적 사업 환경에 직면해 있고 여전히 **이윤 압박 상황을 처해 있음**을 의미

- 이에 따라서 **고용 정체 상황(no job growth)이 지속**되고 있는데, 금년 1월~5월까지의 평균 고용지수가 50 미만을 나타내고 있음

  · 이번 5월 고용지수는 50.1로서 **조사기업의 1% 미만이 고용을 늘렸다**고 답변하였으며, 5월 인건비(Staff Cost) 또한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음

- 요약하면, **PMI 상승이 비석유부문의 빠른 성장**을 의미하고는 있으나, **기업 수익성개선과 고용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** 있으며, **외국인 인구(expat populatuion) 증가 및 가계 소비에 걸림돌**로 작용하고 있음

※ 참고로, Emirates NBD가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아래와 같음

· 사우디아라비아 : 4월 보다 0.5 상승한 57.3

18.8월	18.9월	18.10월	18.11월	18.12월	19.1월	19.2월	19.3월	19.4월	**19.5월**
55.1	53.4	53.8	55.2	54.5	56.2	56.6	56.8	56.8	**57.3**

· 이집트 : 4월 보다 1.6 하락한 48.2

18.8월	18.9월	18.10월	18.11월	18.12월	19.1월	19.2월	19.3월	19.4월	**19.5월**
50.5	48.7	48.6	49.2	49.6	48.5	48.2	49.9	50.8	**48.2**

○ **5월 두바이 월간 경기지수***가 58.5로서 전월(57.9) 보다 0.6 상승

* Dubai Economy Tracker Index, 동 지수가 50을 넘으면 상승세를 의미

- **도소매업**은 61.9로서 전월(60.1) 보다 **1.8 상승**

- **건설**은 54.6으로서 전월(53.4) 보다 **1.2 상승**

- **관광**분야는 59.5로서 전월(58.8) 보다 **0.7 상승**

□ (통화 및 은행 부문) 주재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5월 주재국 통화지표를 보면, **M1**(현금 + 요구불 예금)은 **0.02% 감소**, **M2**(M1 + 저축성 예금 + 거주자 외화예금)는 **1.0% 감소**, **M3(M2 + 정부 예금)는 1.0% 감소**

○ M3 중 **정부예금**(정부의 중앙은행 예금과 일반은행 예금 합계)은 **2,978억** 디르함으로서 전월대비 **27억 디르함 감소**

<정부 예금 추이(단위 : 억 디르함)>

15.12월	16.12월	17.12월	18.12월	19.1월	19.2월	19.3월	19.4월	19.5월
1,560	1,859	2,109	2,939	2,976	2,981	3,031	3,005	2,978

○ 5월 은행 부문 **총신용(총대출)**은 **1조 6,814억 디르함**으로서 전월(1조 6,769억 디르함) 대비 **0.3% 증가**

* 이중 **민간부문 신용은 0.1% 감소**(1조 1,407억 디르함 → 1조 1,390억 디르함)

- **총예금**은 **1조 7,589억 디르함**으로서 전월(1조 7,732억 디르함) 대비 **0.8% 감소**

* 이중 민간부문 예금은 0.7% 감소(1조 391억 디르함 → 1조 316억 디르함)

□ (소비자물가) PwC(PricewaterhouseCoopers)는 GCC 지역의 금년 소비자물가가 **2000년 이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**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

○ PwC 분석에 따라면 GCC 6개국 전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8.12월 +1.3%였으나, 19.1월에는 -1.6%, 19.2월 -1.8%, 19.4월 -1.4%를 기록하였음

- UAE, **사우디아라비아, 카타르는 금년 들어 상당한 디플레이션**을 경험하고 있으며, **여타 GCC 국가들**은 **소비자물가가 약간 상승**

* UAE 소비자물가상승률(연방 통계청) : 18.12월 0.34%, 19.1월 –2.39%, 19.2월 –2.53%, 19.3월 –2.48%, 19.4월 –2.09%

○ 디플레이션 발생의 첫 번째 요인은 **부동산 임차료 하락(공급 과잉 및 외국인 인구 감소에 기인)**이며, 두 번째 요인은 **교통비 하락(휘발유 등 연료가격 하락에 기인)**임

- 블룸버그의 중동지역 수석경제학자인 Ziad Doud는 **부동산시장 공급 과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** GCC 지역의 **디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**고 언급

○ 한편, 아직까지 금년 5월 UAE 전체 소비자물가가 발표되지 않았으나, **아부다비 지역은 금년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0.5% 상승**

* 아부다비 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(아부다비 통계청) : 18.12월 1.2%, 19.1월 –0.9%, 19.2월 –0.8%, 19.3월 –0.8%, 19.4월 –1.3%, **19.5월 0.5%**

□ (아부다비의 경제활성화 조치) 아부다비 정부는 6.25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**9가지 이니셔티브**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, 이는 금년부터 3년간 추진하기로 한 Ghadan 21(Tomorrow 2021)의 세부추진계획을 보완한 것임

* 아부다비는 18년 6월 향후 3년간 500억 디르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, 18년 9월에는 이를 위해 Ghadan 21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

① 즉각적인 면허 발급(Abu Dhabi Instant License)

- 디지털 포털을 통한 면허 신청 등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면허 발급 시스템 구축

② 산업 전기요금 감면 추진(Industrial tariffs initiative)

- 3가지 기준(경제적 영향, 생산성, 전기 부하)에 따른 점수 시스템(scoring mechanism)을 마련하여 전기 요금 감면(최대 40%)

③ 기술 신산업(Tech businesses) 육성

- 기술 분야에서 13개의 사업활동에 대해 새로운 사업 면허(licences)를 발급하는 등 신산업을 육성

④ 중소기업 신용 보증(SME Credit Guarantee)

- 아부다비투자사무소(Abu Dhabi Investment Office)와 First Abu Dhabi Bank(UAE 최대은행)간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

* 중소기업 파산시 이를 대출한 은행에 총 대출금액의 최대 75%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음

⑤ 기업 R&D 프로그램(Corporate R&D programme)

- 아부다비투자사무소(Abu Dhabi Investment Office)에서 40억 디르함 규모의 프로그램을 발족하여 기업 R&D 투자와 R&D 성과의 상업화를 지원

⑥ **데이터 공개 프로그램(Open Data programme)**

- 연구기관, 민간조직, 투자자들이 공공 데이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합시스템을 개발

⑦ **포괄적인 온라인 정부 서비스 시스템(TAMM* Journeys)**

* TAMM은 아랍어로 포괄적인(comprehensive)라는 의미

- 보건, 교육, 주거, 여가, 투자, 사회발전 분야의 정부서비스(궁극적으로 1,600여개 정부서비스 목표)를 원스탑 포탈인 TAMM Journeys를 통해 제공

⑧ **민관 파트너십 플랫폼(Sharaka Platform)**

* Sharaka는 아랍어로 파트너십을 의미

- 민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Sharaka 플랫폼을 운영하며,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의 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

⑨ **생태 관광 촉진(Eco-tourism incentives)**

-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*에서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 → 임대료 및 세금 감면, 신속한 면허 발급, 마케팅 지원, 정부 인프라 투자 등

  * Mirfa(아부다비 시내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160 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), 사막 지역, 민간 소유 섬(private islands) 등

2. 산업동향

□ **(롤스로이스, 무바달라에 65억달러 엔진정비 계약 발주)** Rolls-Royce Holdings는 아부다비 무바달라사에게 에어버스 A330 항공엔진 정비에 관한 65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발주함

○ 무바달라 자회사인 Sanad Aerotech는 향후 9년간 매년 75개의 Trent 700 엔진을 정비하게 되며 이는 세계 전체 A330의 1/4에 해당하는 물량임

- 이에 따라 Sanad는 정비인력을 40% 늘려 약 500명까지 확보할 계획임

□ **(아부다비, 대형 비료공장 설립 계약)** 아부다비석유공사(ADNOC)는 네덜란드기업인 OCI와 비료공장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함

○ ADNOC Fatilisers가 42%, OCI가 58%를 소유하게 될 합작법인은 MENA 최대의 질소비료 생산회사로서, 연간 5백만톤의 요소비료와 150만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여 대부분 수출할 계획임

□ **(두바이 프리존, 장기 거주비자 발급 지원)** 두바이 제벨알리 프리존(JAFZA)은 입주기업들에게 장기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

○ 새로운 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, 기업가,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적용되는데, JAFZA는 연방 당국과 협조하여 기존 및 신규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
□ **(아부다비 스타트업 허브, MIT 인큐베이터와 제휴)** 아부다비 스타트업 허브인 Hub71은 아부다비 창업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MIT 기업포럼의 하나인 MITEF Pan Arab과 제휴함

○ Hub71은 무바달라투자공사, 아부다비글로벌마켓, 마이크로소프트, 소프트뱅크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, MITEF Pan Arab은 졸업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 창업자들을 아부다비로 유치하는 역할

3. 자원 · 에너지 동향

□ **(초대형 해상가스처리 플랫폼 완공)** 아부다비석유공사(ADNOC)는 Umm Al Lulu 지역에서 사용할 세계 최대용량의 해상 천연가스 처리 플랫폼을 완공하였다고 발표함

ㅇ 77.7미터×83.5미터 크기의 플랫폼은 35개 설계사가 참여한 가운데 5년에 걸쳐 UAE의 NPCC사가 건설하였는데,

- 천연가스의 수분제거 및 가압, 담수화 설비를 갖추고 2020년에 일산 10만 배럴을 처리할 예정임

□ **(아부다비,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 가동)** 에미리츠수전력공사(EWEC)는 단일부지로는 세계 최대인 1,177MW 규모의 Noor Abu Dhabi 태양광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함.

ㅇ 아부다비정부, 일본 마루베니, 중국 징코솔라가 합작하여 아부다비 Sweihan 지역에 8.7억달러를 투입하여 건설된 이 발전소는 8평방 킬로비터 부지에 320만개 태양광패널을 설치하여 9만명의 전력수요를 공급하게 됨

ㅇ 동 발전소는 설비용량 이외에도 계약 발전단가에 있어 계약당시 기준으로 2.42 UScents/kWh를 기록하여 세계 최저 단가를 기록함

□ **(아부다비, 2GW 태양광 건설계획 발표)** 아부다비정부는 6월말 개최된 아부다비기후회의 계기에 세계 최대 규모가 될 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아부다비 서부지역에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

□ **(아부다비, 제조업 대상 전기요금 인하 계획)** 아부다비정부는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제조업 대상으로 아부다비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최대 40%까지 깎아주기로 함.

ㅇ 이 방침은 아부다비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3개년 경제활성화계획 Ghadan-21에 따른 것으로 향후 10년간 제공될 계획이며,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

ㅇ 현재 산업체는 kWh당 28.6 필스(7.8 UScents)를 내고 있는데, 최대 감면율이 적용될 경우 17 필스(4.6 UScents)를 낼 수 있게 됨

□ **(두바이, 부유식 태양광발전 타당성 검토)** 두바이수전력청(DEWA)은 부유식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타당성연구를 착수하고 6.9일 컨설팅 입찰공고를 실시함

ㅇ 타당성연구에서는 기술요건, 환경 및 해양 생태계 평가, 송전계획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할 계획임

4. 건설·플랜트 동향

□ UAE 및 사우디, 중동 지역 유틸리티 프로젝트 주도

ㅇ 중동 지역 다른 국가에서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UAE와 사우디 두 나라에서 발전, 담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

ㅇ UAE는 푸자이라 복합화력발전소 F3 입찰(EWEC), 900MW 태양광 발전소 입찰(DEWA), 알 다프라 1.5GW 태양광 발전소 입찰 준비(EWEC), 하시얀 담수 플랜트 조달, 120 MIGD 담수 플랜트 입찰 의향서 접수(DEWA) 등을 진행하고 있음

ㅇ 사우디는 라빅3 및 슈카이크3 담수 플랜트 계약을 체결하였고(SWPC), 주베일 3A 및 3B 담수플랜트 입찰 의향서 접수(SWPC), 수처리 플랜트 및 전략적 저류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

ㅇ 쿠웨이트, 카타르에서 메이저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고 이집트는 시장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어서 UAE와 사우디는 금년 하반기에도 개발자 및 사업자들에게 주된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

□ EWEC, 연방수전력공사 CFO를 신임 CEO로 선임

ㅇ 에미레이츠수전력공사(EWEC)는 북부 에미레이츠 지역에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연방수전력공사(FEWA)의 재정본부장(CFO) 오트만 알 알리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

- EWEC는 2018년 11월 아부다비수전력공사(ADWEA)를 대체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번 인사는 아부다비와 북부 지역의 유틸리티 기관을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추진

□ **두바이, 첫 번째 풍력 발전 프로젝트 자문기관 모색 중**

ㅇ 두바이수전력청(DEWA)은 하타 지역 풍력 발전 프로젝트 검토를 위해 컨설팅 기관들로부터 제안서를 초청하여 7.23일까지 접수할 예정

ㅇ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두바이가 2050년까지 에너지의 75%를 청정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로 처음 개발하는 풍력 발전소가 될 것임

□ **두바이, 하시얀 담수 플랜트 입찰 의향서 접수**

ㅇ 두바이수전력청(DEWA)은 하시얀 담수 플랜트에 대한 입찰 의향서(EOI)를 초청하여 7.9일까지 접수할 예정

- DEWA는 영국 EY(사업, 재정 자문), 영국 CMS(법률 자문), 캐나다 WSP(기술 자문)와 계약을 하고 120 MIGD 규모의 담수 플랜트 건설에 착수

ㅇ 상기 프로젝트는 두바이가 독립 담수 플랜트(IWP) 모델로 발주하는 첫 번째 담수 플랜트가 될 것임

□ **에티하드레일, 2단계 패키지 B, C 구간 사업자 선정**

ㅇ 에티하드레일은 2단계 패키지 B(아부다비), C(두바이) 구간 사업자로 현지 기업 간툿 교통과 중국의 중국철도건설공사(CRCC) 컨소시엄을 선정

- 패키지 B는 아부다비 216km 구간이며 패키지 C는 두바이 94km 구간으로 총 계약금액은 12억불 규모

ㅇ 샤자 및 푸자이라내 127km 구간의 패키지 D는 6.16일 입찰서를 접수하여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

□ **두바이, 메트로 운영기관 선정 착수**

ㅇ 두바이도로교통청(RTA)은 두바이 메트로 운영 관리 기관 선정 사전 심사 착수

- 현재 운영기관인 영국의 세르코를 포함 10여개 기업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

ㅇ 금년 4월에 RTA는 세르코와 2019~2021 유지 관리(O&M)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2021년 이후 O&M은 두바이 조달법에 따라 재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함

□ **두바이, 무인 교통 수단 개발을 위한 MOU 체결**

ㅇ 두바이도로교통청(RTA)은 스카이트랜과 무인 교통 수단 개발을 위한 MOU 체결

ㅇ RTA 관계자는 무인 교통수단의 하나로 거론되는 자기부상(maglev) 기술을 활용한 스카이 포드를 제시하면서 안전성과 비용 효율성을 강조

- 스카이 포드 시스템은 두바이가 2030년까지 이동량의 25%를 무인화한다는 전략에 기여하게 될 전망

□ **두바이, 알막툼 공항 확장사업 구조공사 입찰 마감일 제시**

ㅇ 두바이항공기술프로젝트(DAEP)는 알막툼 공항 확장사업 중앙홀 및 西터미널 구조 공사(27억불 규모) 입찰에서 수정가격 접수 마감일을 7월 말로 최종 제시

- 알막툼 공항 확장사업중 최대 규모인 위 공사는 금년 1월에 입찰이 개시되었으나 4월에 수정가격 제출 요구가 한 차례 있었고 이번에 최종 마감일을 제시

□ 두바이 대관람차(Ain Dubai) 탑승 캡슐 설치 착수

ㅇ 프랑스의 포마는 현대건설로부터 세계 최고 대관람차 Ain Dubai의 탑승 캡슐 설치 작업을 수주

- 작업 내용은 48대의 캡슐을 설계, 조달,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작업으로(EPCI) 계약 금액은 5천만불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짐

- 포마는 영국의 London Eye, 미국 라스베가스의 하이롤러 같은 주요 관람차 프로젝트에 캡슐을 제공한 바 있음

□ 두바이, 2040 도시 마스터플랜 자문사 선정

ㅇ 두바이 시청은 2040년 목표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미국 제이콥스와 계약

- 두바이 에미레이트와 하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2020년 목표의 기존 마스터플랜을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하는 것이 과제 내용임

□ 샤자 석유공사(SNOC), 8억불 규모 함리야 항 LNG 프로젝트 지속 추진 발표

ㅇ SNOC는 2017년 12월 독일 유니퍼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8월 EPC 입찰서를 접수받았으나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

ㅇ 이에 SNOC가 최근 샤자 에미리트의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비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

5. 농업·식품 동향

□ UAE 두바이, 프랜차이즈 음식점 칼로리 표기 의무화(6.18, Gulfnews)

ㅇ 두바이 행정부(Dubai Municipality)는 5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해 메뉴에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 함

- 새로운 규정은 금년 11월부터 적용되며, 5개미만의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및 모든 음식점들은 2020년 1월부터 적용

ㅇ 소비자들은 음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알맞은 음식을 선택하여 더욱 건강한 외식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, 더욱 건강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바이 거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음

- 국민 건강, 특히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UAE 및 두바이 행정부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써, 앞으로도 식품 전반에 걸친 관련 규정들이 수립 될 것으로 전망

□ 제2차 한-UAE 농업협력위원회 서울에서 개최(6.21, WAM)

ㅇ 사이프 알샤라 UAE 기후변화환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UAE 대표단은 지난 20일 서울을 방문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일정 국제협력국장 이하 실무진들을 만나 제2차 한-UAE 농업협력위원회를 진행하였음

- 주요의제는 양국 간 양해각서를 통해 구축된 양국 스마트팜 협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비전 그리고 농업정책 현황 공유 및 농식품 교역 확대 방안 등이었음

ㅇ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던 양국간 스마트팜 분야 협력에 대한 진전 상황을 확인하며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시작되는 4개 분야(가축케어, 스마트온실, 대추야자, 벼재배) 공동연구과제 추진에 대해 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협조하기로 합의하였음

- 특히, 한국 인삼 수출과 관련하여 소관부처와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UAE측에 요청함

ㅇ 차기회의는 2020년 UAE에서 개최하고 날짜와 장소는 추후 협의키로 함